朝鮮日報
朝刊夕刊六頁刊行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閔泰瑗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朝鮮日報社

論說

蕭條한中國의形勢

一

吾人은일즉이平凡化하는中國의政情을論評한바잇섯다 이지음의中國의形勢는 돌이어蕭條함을늣기게한다 南方에孫中山이잇고 北洋에袁世凱가잇서서각각風雲을날으키든時代는자못活氣가잇든바이엇섯다 이兩人者가前後하야 沒落된以後의中國의政局은 漸次平凡함을보래여왓섯다 段祺瑞 馮國璋 曹錕 吳佩孚 張作霖等이 北洋에서起沒하고 馮玉祥 蔣介石等이 孫中山의遺志를代行함이잇스나 或一時의活氣를보임이잇섯슴에不計하고 문득이敗함을보엿고 또보이려고하고잇다 馮玉祥氏는約變함으로써 特色을지은양하여서 배도는자못端倪키어려운바잇는듯하나 馮氏로因하야 組織的으로또系統的으로 革命의大業을完成키를期待하기는困難할것이다 北伐軍을奬率하야 武漢까지進出하엿든蔣介石은 그氣慨와智略이特筆할만한바잇더라도 그人物의眞價에關하야는 지금까지도疑問이엇섯다 이제蔣氏의死亡을傳한지累日에 아즉그를抹消할確報는업고 中國의政權은더욱蕭條한氣味를加할뿐이다

二

香港의來電은國民政府가蔣介石의後任問題를 詮議中에잇슴을報하고 北伐軍의一重鎭인李宗仁氏의戰死까지報하야 彼等의氣勢가 極히落莫한感이잇게한다 이에잇서서 覆直隸派諸將은 다시曹錕으로總帥를삼고 吳佩孚 孫傳芳等으로前驅를삼어서 對赤軍의旗幟를들고武勝關으로南下할이잇슴을傳하니 彼等革命派의形勢가 더욱凋殘함을浩嘆하게함과가트다 그러나北伐軍이猝然九江을占領하고孫傳芳은 江北으로逃命함을報하니 적이革命派를爲하야 氣焰을더하는바이다 그러나楊森軍의岳州占領이만일事實이라하면 湖南과및武漢이 적이不安한바이오 九江의固守는아즉疑問임으로 形勢依然히革命派에게不利함을推斷할것이다

三

廣東으로부터 湖南 湖北을席捲하고 江西의首府를 또한그掌中에거둔것은 革命派近年의殊勳으로서 자못前例를絶한者이다 그리고蔣介石과가튼者는 最近稀有한傑物로서 그將來가자못屬目되는者이엇섯다 氏가지금死亡하엿는지 아니하엿는지는 絶對로信憑키는어려우나 彼로서만일死亡하엿다하면 中國의革命運動이 다시적지아니한打擊을입은것만은 否認할수업다 北伐의八軍과잇그軍長된者들은반듯이純粹한革命分子는아니엿섯고 蔣介石氏로말하더라도 반듯이群雄을統御하야 遺漏가업는者는아니엿섯다 그러나彼의存沒로서 北伐軍의輕重을못게된것만은明確한形勢이다 蔣介石死亡이虛說인것을傳하는것도 依然히未可知의일이다

四

蕭條한中國의形勢! 그는吾人의說하는바가 반듯이悲觀에치우침은아니다 中國의形勢가革命派의勝利로因하야展開될것이라하면 革命派의勝算가 卽 그形勢의勝算을表示하는것이다 그러나革命派의戰地에서의得失이多少의變動이잇슴에不計하고 軍閥의崩壞沒落은 드되어回救할수업는 形勢이다 對赤軍의旗幟를들은曹 吳兩氏者는 河南 湖北에서의進退는어찌햇든 다시重大한形勢를飜致하기는至難할것이오 孫傳芳이비록各地에서制勝하고 夏超로하야금立地에敗亡하게하엿스나彼도또한吳氏의覆轍을밟을것은 멀어서數年을나아가지아니할것이다

五

近者張作霖이大總統에推戴된다하니 張氏의全盛을表示한하나 張氏가敗亡을催促함일는지못다 彼가東三省에蟠居하야자못根據를삼고 强隣의힘을빌어서久遠함을하나 彼도서 中央政界에進出하면할스록 그敗亡은時日을期하여올것이다 이러하야 彼等軍閥이崩解와沒落을거듭하는동안 革命派의勢力은漸大全國에 瀰滿하게될것이다 만二重性을가진彼等의 革命이먼저國民革命에注力하고 그리고漸次左傾의步武를나아갈것은看過할수업다 彼等은지금차라리赤色을厭惡하면서 國民革命完成의苦悶中에잇는것이다

日中條約改訂 回答案主義決定

(東京電) 日中通商條約改訂에關한中國政府의提議에對하야日本政府의回答은豫算問題其他關係로서延引하고잇섯든바攝政殿下의九州行啓前에回答案의主義方針을決하기로九日의閣議에附議決定하얏더라

日露漁業協約交涉 圓滿히進行될듯

(東京電) 莫斯科에서열린日露漁業協約交涉은旣報와如히國營漁區問題이懸案이되여잇든바露國側도從來의慣例를尊重하고且日本側의旣得權을侵害치안는程度로解決되도록妥協的意向이되여잇슴으로近近大體의交涉을遂하야來年度漁期外지에交涉은圓滿히進行되리라더라

總辭職以外엔 良策이別無라고

若槻首相의起訴와野黨觀測

(東京電) 松島事件에關하야若槻首相이僞證罪로서起訴되기에至한事情에就하야野黨方面에서는左와如히言한다더라

此問題는最初政府가策略을用하야政友會及本黨에影響을주어언고저하야江木法相等이種種의準引을試하엿든바實際에잇서서憲政會의幹部中은거의全部이에因緣이잇슴을알고다시移轉問題에就하는同時에內相若槻와內務當局이이은근히內諾을與한것이明瞭하게되야더말하면若槻內相의書面이라하야가지고裁判所의手에잇다고하外지言한것이다

如斯한즉箕浦, 若槻, 高見其他에서는어데서나詐欺罪를構成식힐뿐만아니라若內務當局이移轉의內諾을與한事實이明瞭할時에는會에서堅白異同의辨을하기는得策이날必要가無하다若槻首相은或意한것이나神聖한法權의압헤서는一切의眞實을告白하야事件의嚴正한解決에努力치안흐면안될것이라고思하고언으것이나政府는自己가掘한穴에陷하는것으로玆에至함에는遠서議會의解散도可測할것임으로潔白하게總辭職을行하는外에他途는無할것이다

政府態度冷淡 箕浦氏는告訴

(東京電) 箕浦翁이若槻首相을告訴한事件에對하야翁과가장親近한某氏는語하되

「箕浦氏가最近陳述을諫하엿다고傳하는것은誤說로서最初부터一貫한것임니다오즉過般上申書를提出하고下阪하야角南判事의訊問을受한에는最初부터의申立을大서게한때不過하며[illegible]政府가[illegible]思잇슴을確信하고잇슴에不拘하고首相의態度는冷淡하야自己一人을潔白히하고저하야他를不顧하는態度를持하고川崎大官과가튼이는政府에當時移轉의意志업섯든旨를公言하야翁을死地에陷하며江木法相의措置亦冷酷하야翁에게何等의考慮를拂치안는것은翁은非常히憤慨하야祖先及子孫을爲하여서도如斯한時에默默히잇슬수업다하야獨斷告訴를決行한것이라하더라

首相告訴事實 八日本省報告

(東京電) 箕浦氏가柚木辯護士를代理로하야若槻首相에對한僞證의告訴를大阪地方裁判所檢事局에提出한報告는同夜電報로서本省에報告되바今朝右報告를바든江木法相은九日午前九時若槻首相을訪問하고右報告를行하엿다

九日閣議內容

(東京電) 九日의閣議는午前十時부터首相官邸에開會한바먼저若槻首相으로부터七日大阪地方裁判所角南豫審判事의松島事件에關하야證人으로서의取調를受한顚末을說明하고江木法相으로부터左의經過를述하고十時半에至하야八日角南判事의取調한事實을聽取하고閣僚에報告하엿다 尙히箕浦勝人氏로부터告訴한件에關하야는目下司法省에서調査中이란旨를江木法相으로부터報告가有한바幣原外相으로부터日中通商條約改訂에關하야報告가有한바[illegible]

特急列車에도 三等寢臺連結 十一日만取扱

三等寢臺車는至今까지는釜山午後八時發京城午前七時四十五分着奉天行普通急行列車와第一、二列車만에連結하엿든바三等旅客의激增과그便宜를圖키爲하야十一日부터京城午後七時二十分發奉天行特急第七列車와奉天午後二時發京城午前九時四十分着釜山行特急第八列車에連結하는바第八列車는十一日만安東驛부터取扱하게되엿다더라

群山勞働共濟會 創立二十八週年

春風秋雨二十八星霜 感激에넘치는紀念式

去陰十月三日에群山勞働共濟會에서는 創立二十八週年記念式을午後八時同會館內에서擧行하엿다는데會員은定刻前부터모혀約百餘名에達하엿섯스며本會常務車周相氏의司會로그날의紀念式은感激한空氣中에嚴肅無事히閉式되엿는데여는正히午後十二時頃이엇다더라(群山)

後援會組織으로 曙光비친朗南學院

靈岩에잇는朗南學院은當地靑年會主催로設立以來五個星霜을通하야每年百五十의兒童을收容敎授하든바今春朗山勞働組合은從來同院의後援機關으로所有土地二百餘斗落의果實에서互斷의物質을補助하든바를同組合[illegible]分子의策動으로自體는解散되고資産은配當하여바린結果同院의經營維持情狀은地方人士로서는閉口弗舌할餘地도업는悲運에陷하얏는데此를大不祥事로感하는有志는今般同院의後援會를組織하야同經營維持의責任을負케하고거지난五日上午九時同學院內에서同會創立總會를開하고河大斗氏司會下에曹秉恩氏經過說明이잇슨後會則通過와任員選擧를行하고業務進行方針에就하야百方討議한結果左記各項을決議하고同十二時에散會하얏다는바被選任員과決議事項은左와如하더라(木浦)

◇任員

會長河大斗 副會長曹秉東 總務金相衡 幹事曹秉恩 朴敏濟 河應勳 金俊久 金相寶 金東烈 李相萬 評議員金俊化 河鼓秀 李元雨 金玹璇 鄭鍋 朴判宗 河敏彦 金萬敬 金鳳奎 曹克煥 鄭正

◇決議

一、業務執行에關한件
十一月十日부터事務에着手할것
一、會員資格에關한件
會金二圓以上은普通 同十圓以上은特別會員으로할것
一、會員募集에關한件
靈岩人及靈岩에住所又는營業所를置한者에對하야加入을勸誘하기로함

全北記者團總會 來二十一日南原에서

全北記者團에서는去七日午後一時裡里本團事務所에서第十一回執行委員會를열고各地委員들로부터當該地方狀況報告가잇섯고이어서諸般事項을討議한後同三時에散會하엿다더라(裡里)

◇討議事項

一、委員補選의件
執行委員林晢相 宋柱祥 梁佳度 李泰魯四氏辭任을受理하는同時에李龍基 崔成龍兩氏는補選
二、本團秋季總會開催의件
가、時日 十一月廿一日
나、場所 南原邑內
다、會費 一圓

楸子下島 靑年會創立

創立劈頭부터 當面諸問題決議

지난十一月一日午後一時金鍾勳氏司會下에楸子下島靑年會創立大會를楸子下島公立普通學校大講堂에서開하고開會劈頭에楸子靑年會幹部에게 警告文을發送하야그解體를勸告하자는朴鍾菜君의緊急動議가滿場一致로可決된後 다시準備委員朴會補君이起立하야民意를無視하고海藻共同販賣漁具共同購入을斷行하는[illegible]過般三月末에民衆의騷動을惹起한漁業組合의撲滅에努力하자는提議가又復滿場一致로可決되야形勢가자못危急하든中다음議事에進行하야여러가지로討議한後楸子下島靑年會萬歲三唱과世界無產靑年萬歲三唱으로閉會하엿는바綱領, 決議事項及執行委員氏名은如左

◇綱領

一、我等은大衆의本位로한新社會의建設을期함
一、我等은大衆의合理的生活에必要한實際利益을爲하야鬪爭함
一、我等은社會科學의眞實한學徒가되기를期함

◇決議事項

一、靑年運動에關한件
가、運動의根本方針
나、敎養問題
다、宣傳問題
라、組織問題
一、女性敎養에關한件
一、少年指導에關한件
一、農村啓蒙에關한件
一、漁村問題에關한件
一、當面問題
가、海藻共同販賣에關한件
나、漁具共同購入에關한件
다、鹽干口錢에關한件
라、楸子靑年聯盟發起의件
上島靑年會를組織케하야在來의楸子靑年會를楸子靑年聯盟으로改名하야聯合機關으로할것
마、濟州靑年聯合會에加盟의件
楸子靑年聯盟이本月末日까지完成되면楸子靑年聯盟에加盟하며不然이면本會가加盟할것
一、經費問題에關한件

◇執行委員

金鍾華 朴鍾菜 朴奉淑 吳鍾泰 趙鍾允 黃宰熙 尹蓮鉉 黃明采 尹洪助 朴昇奎 李基萬 河琅淑 元常坤 李康來 金鍾勳

朝鮮人의손을떠난 价川天皇山金鑛

無盡藏의黃金庫임을 發見한日本人이開鑛하는中

价川郡中西面天皇山에는只今으로부터十年前에朝鮮人의經營으로金鑛을하여오다가經驗을失하는同時에資金을融通치못하야結局閉鑛하고解散하엿던바昨年度에日本人採鑛家가前記天皇山一帶를探査한結果無盡藏의黃金庫인것을發見하고直히許可를得하여가지고試鑛을行한後去九日에開鑛式을盛大히擧行하엿다는데目下各地方으로부터鑛夫가雲集한다더라(安州)

公娼廢止運動과 社會

投稿欄 十四字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木浦 [illegible]

◇販賣과賣淫을거듭하고잇는大衆의苦痛소리는넘처가고反抗의旗도날리기시작한다 人生은누구나다가튼「生」을찾고「生」을차즈려허덕거리는가 누구는[illegible]에서神聖하며 누구는[illegible]사러집에서飢寒에우는가 생각할때에現下社會制度의反抗이업슬가보냐! 더욱히[illegible]까지팔어붓는[illegible]에서모든[illegible]

[illegible]이잇다! 黃金은그의精神을빼앗고 그러고그의肉身까지빼앗는다

◇그들은自己의몸과靈을人肉의거리에서[illegible] 그러나그들은反抗할줄모르고오즉自己의運命[illegible] 自殺의길을밟는다 그러나[illegible] 이러한女性의反抗의소리가[illegible]

◇現社會는[illegible]우리大衆이[illegible]

[illegible]

馬山武道大會 崇武團主催로

馬山崇武團에서는얼마전부터當地靑年의無料入團을許하는便宜로 道服外지도從來의個人所有이든것二十餘件을入團者면누구든勿論하고共同使用하는共有로하기로하고團의擴張과改革을圖하야오든바來十三日에는다시柔道宣傳으로武道大會를開하기로當地講座에열고키方今大大的으로鍊習하는中이다고(馬山)

高城沿海의 鰮魚盛産으로 各處漁船每日集中

今年은咸鏡南道沿海에서鰮魚(정어리)의盛産으로各地漁業者가集中하야大盛況을일우엇슴은이미本報에도記載되엇거니와至今은江原道高城沿海에도鰮魚가多産하야高城郡長箭港岸은자못정어리世界를일우어空前의大盛況임으로多年間不景氣에울고잇든一般은이것이幸運의時期가아닌가하며各處의漁船은每日集中하는데事役人夫가不足되야一般漁業者는極히困難하다더라(長箭)

農村問題講演盛況

朝鮮農民社主催로地方巡廻講演士李晟煥氏가去五日에來安하야當日午後七時부터安州天道敎宗理院에서『朝鮮農村의根本問題』라는題로熱辯을吐하엿는데一般聽衆에게無限한興趣를與하엿다하며大盛況裡에閉會하엿다더라(安州)

褒津馬山共同浴場 落成式大盛況

諸餘興으로因하야

褒津馬山은여러가지로自然의惠澤이他地方에比하야豊富한中더욱이溫泉의藥水가잇서서그일홈이遠方에外지잇친바이다 그러나浴場이不完全함으로因하야他地浴客이稀少한關係上同地의發展은自然히遲延되엿다 이것을遺憾으로생각하는同地方官民有志의發起로昨年겨울에馬山公同浴場을建築에着手하게되엿든바近에至하야浴場이落成케되엿슴으로지난六日에同浴場落成式을擧行하야馬山市街는花朝月夕의新天地를이루엇다 집집마다萬國旗와人造花와色燈을느리고千紅萬紫의봄을代하고캄캄한밤에는여러가지의燈火를다리여秋夜明月을代하게되엿다 落成式은當地岩崎浴場遊園에서上午十一時부터擧行케되엿는바來賓數

四面聯合主催로 畜牛品評

淸安驛前에서

忠北槐山郡曾坪, 淸安, 道安四面聯合主催로本月九日十日二日間畜牛品評會를曾坪面曾坪里(淸安驛前)에서開催한다더라

礪山同友會의 日曜講座設置

定期總會決議로

全北礪山에在한礪山同友會에서는지난七日上午十時부터崔宗鉉家에서第三回定期總會를開하고崔宗鉉君司會下에日曜講座에關한準備와다음과가튼決議가잇슨後下午三時半頃에閉會하엿다더라

◇決議事項

一、規約改正에關한件
一、經費에關한件
一、新入會員加入에關한件
一、圖書縱覽에關한件
一、日曜講座設置의關한件
(裡里)

咸興少年會 革新總會의決議

咸興少年會에서는會의一切를革新코저지난十一月六日午後七時半에咸興靑年會館內에서革新總會를[illegible]

元山港의 本年貿易

十月末까지의 總貿易二千餘萬圓

元山港의本年貿易은十月末日外지의總貿易額二千一百六十萬五千一百七十八圓에達하야昨年同期보다五百十三萬二千六百八十三圓의激增을示하엿다其內容은一月以降十月外지의累計는輸出一百四十三萬九千九百六十大圓으로前年보다二萬五千五百圓이增加、移出五百七十三萬七千九百二十圓이前年보다一百九萬二千七百十三圓이增加되여輸移出合計七百十七萬七千八十六圓으로前年보다一百十一萬七千五百十九圓이增加되엿고 또輸入四百三十九萬九千七百六十八圓으로前年보다五十四萬六千三百三十一圓이增加、移入은一千百四十六萬七千五百三十二圓[illegible]輸移入合計一千五百八十二萬二千六百八十圓[illegible]增加를보엿다고(元山)

元山米穀組合 秋季定期總會

元山米穀商組合에서는지난七日下午四時부터府內上洞韓君弼氏商店에서秋季定期總會를開하고營業報告와決算報告가有한後滿期된監查役三人의選擧가잇섯다는데氏名은左와갓다고(元山)

韓君弼 林忠植 劉戴淑

公根普校落成 去三日에落成式

江原道橫城郡에는敎育機關이不充分함을언제나遺憾으로생각하든바前橫城郡守石明瑄氏와同郡公根面長鄭鎬成氏의誠力과一般面民의熱誠으로公根面에公根公立普通學校를設立하여約一個年間을敎授하여오며校舍를新築하엿든바去十一月三日에는同校新築落成式을擧行하엿다는데午前九時부터는同校生及邑內普校生徒의運動會가잇섯스며午後三時에는新築落成式을擧行한바더욱이이날에는江原道參與官以下諸來賓이參席한中大盛況裡에서無事閉會하엿다더라(橫城)

農民問題講演 盛況裡에閉會

平壤朝鮮農民社主催로去八日下午七時에府內薛岩里天道敎堂에서李國民司會下에演士李晟煥氏의農村問題에對한講演이잇섯는바同八時半頃에大盛況裡에閉會되엿다더라(平壤)

全鮮商議 聯合會와 平壤商議의協議

平壤商業會議所에서는去六日午後一時同會議室에서評議員協議會를開催하얏는데議題는來十七十八兩日間木浦에서開催될第九回全朝鮮商業會議所聯合會에對하야各地商業會議所提案에對한平壤商業會議所의取할態度決定의件인데全部各商業會議所提案에對하야는賛成하기로하얏스며但只大邱商業會議所의提案에對하야는當該會議所의態度를보아서後態度決定을出席議員에게一任하기로하얏는바各地商業會議所提案은如左하며平壤商業會議所에서는提案을아니하기로하얏다더라

◇木浦商業會議所提案
商工業獎勵補助에關한件
◇元山商業會議所提案
運送貨物拔取에關하야各方面에嚴重取締要求의件
◇淸津商業會議所提案
淸津에露國領事分館又는常置查證官駐在를要望하는件
◇大邱商業會議所提案
新羅의古都慶州를中心으로하는國立公園設置를要望하는件
◇仁川商業會議所提案
鮮內에서造船業者에小汽船建造及修理에適當한設備를有한者에對하야獎勵保護法을制定할事를要望함
◇群山商業會議所提案
朝鮮鐵道敷設에對하야政府는更히積極的으로幹線全部의完成을期하도록計劃을變更할事를要望하는件
◇京城商業會議所提案
朝鮮釀造工業에對하야積極的保護獎勵의施設을講할事를要望하는件
地方官廳及諸學校의支拂期日을正確케할事를要望함(平壤)

四團體移轉

大田우리靑年會, 第一線同盟, 民衆運動者同盟, 大田勞友會, 大田鐵道俱樂部는大田郡大田面大興町四八四의一에移轉하엿고農民組合大田支部도同番地에移轉하엿다더라(大田)

迎日北方 郵所設置 許可運動

慶北迎日郡[illegible]은朝鮮의三大市場의하나인扶助市와東으로는海産物의大宗인長鬐東海와南으로는大松島川南面北으로는慶北의關門인浦項港을돌지고잇서交通이實로四通八達의要衝을占하는重要地인바公普校面役所駐在所等의機關은旣히設置되엿스나아즉外지郵便機關이設置되지안음으로當地一千五百戶의住民들의不便不利는勿論一個月에十二次式開市되는外來의商民들에게는莫大한損失이잇슴이事實이오또地方發展上에도不少한關係가잇슴을切實히늣긴地方有志들이率先하여有志[illegible]氏가責任者가되야昨年十一月中에當局에設置許可願을提出하엿스나至於今토록何等消息이업슴으로面民들은一刻이如三秋로苦待中이라는데近間不成功이면面民大會를招集할意向이라더라(浦項)

盈德盈德面에 赤痢病舍建築

面의經費로

慶北盈德郡盈德面은位置가海岸線에잇슴으로頻頻히虎列剌、赤痢病其他傳染病이種種侵入流行함으로이를豫防또는衛生宣傳에努力하든바面當局에서는大正十三年頃에七百圓同十四年度에七百圓同十五年度에四百五十餘圓의積立金으로서十一月下旬부터盈德邑과江口港中間地點인錦湖에敷地數十餘坪의赤痢病舍를建築中인바十二月二十日頃에竣功되야現今은外部工事中이며數日內에完成되겟다더라(盈德)

永興支局投書函

本報永興支局에서는本地方에一般民情을詳細히알기와其他숨은記事의材料를探問하기爲하야去月分에左記場所에投書函을配置하엿다는데一般은多數投稿하야주기를바란다고

△投書의注意事項

投書에는勿論[illegible]本支局에서調査하기容易하도록事實을充分히記入하며可及的이오면住所氏名을明記할을要함

△配置場所

第一號 南山里文昌樓前
第二號 龍南里朴昌燦家前
第三號 西街里周永國家前
第四號 驛前里東亞運送店前
(永興)

地方團體動靜

◇同友會委員會 安州思想團體同友會에서는去六日正午로부터七星里同會社會部委員長康潤善氏自宅에서委員會를委員長許炯氏司會下에開하고左記事項을討議하엿다고(安州)
安州女子職工組合創立을積極的으로後援할件
關西男女雄辯大會開催에關한件

◇咸興女子靑年定期總會 咸興郡에잇는咸興女子靑年會第八回定期總會를十一月七日午後三時에當會館內에開催하고臨時議長林貞東氏司會下에左의綱領及規約의通過와決議事項이잇섯다는데自今以後로는會務를一新革新한다고

△綱領
一、社會的解放鬪爭을主旨로하는女性解放運動의前衛的役割을期함
二、靑年女子의社會科學的敎養을期함
(規約은略함)
△決議事項
一、會館에關한件
一、會員募集에關한件
一、月例會에關한件
新任執行委員
林貞東 朴愚泰 元容植 金容鎭 韓乙淑 外五人(咸興)

◇盈德靑年會總會 盈德靑年會에서는지난六日下午一時부터同會館內에서第十二回總會를開催하엿는데會長姜尙哲氏의司會下에會員點名、各部報告、任員補選、會則에對한討議가長時間잇슨後圓滿한會議로서閉會하엿다는데決議事項과補選된任員은如左하다더라
△決議事項
[illegible]
(盈德)

◇元山女子靑年總會 元山長老敎會의女信徒를網羅組織한元山女子基督靑年會에서는지난十月三十日下午三時부터府內石隅洞長老敎禮拜堂內에서臨時總會를開하고臨時議長裵明淮女史의司會로事業經過報告가잇슨後將來의進行方針을協議하고一般任員을改選한結果左와가티選定되엿다고
會長李誠訥 副會長裵明淮 總務李順道 書記金泰鎭 睦貞淳 會計王明吳 李慈卿 宗敎部長盧貞淑 社交部長裵明進 文學部長趙仁夏 音樂部長李順道(元山)

◇新義州靑年創立紀念 新義州基督敎靑年會에서는지난四日에創立紀念式을第一禮拜堂에서擧行하엿다는바會長崔允鼎氏司會로來賓三百餘名으로一年동안의經過를報告하고來賓으로는宋濟元氏外數氏의뜻깁흔祝辭가잇슨後來賓에게茶菓가잇섯다고(新義州)

地方漫筆

郡是製絲工場視察記(二)

大田支局 一記者

蠶種製造가이만치發達된反面에는成績取引도講究하지안으면아니되미더욱히合理的取引法이蠶業의改良獎勵上가장緊要함으로이에該社는百折不屈의勇敢을가지고苦心硏究하야 結局은正取引(卽郡是取引)을創始하고써蠶業製絲兩者의親善을圖하야蠶種改良의標準을明示하얏스며더하야良의實績과價格의均衡을保存케하는同時에養蠶家는따라서그業에安堵하야스사로改善에汲汲하게되얏스니여긔서眞實한蠶業品組織이生하게된것이다 正量取引은明治四十二年에[illegible] 大正十三年度의取引狀況을보건대
郡是取引繭……一府十七縣下
郡是取引組合……二千八百組合
郡是取引戶數……八萬戶
郡是取引繭量……三百五十萬貫
의良好한成績에達하얏다 [illegible] 該社의資本金은最初九萬八千圓으로서其四分之一인二萬四千五百圓의拂込에不過하얏스나其後[illegible]同四十三年四月에現在의名稱郡是製絲株式會社로改稱하고[illegible]大正三年歐洲大戰亂이突發하자世界의經濟는大恐慌을惹起하얏스며生絲貿易市場도또한暗黑하게되얏음을따라서絲價가暴落하야該社는非常한打擊을바닷고資本金以上의損失을招致하야經營至難의狀態에陷하게되얏슴으로[illegible]同時에重役及社員一同은玆에大決心으로써更히四十五萬圓의增資를斷行한바財界殊히不振의秋이엇지만一般의信用과義挾的同情에依하야理想以外의好成績을得하야危機의難關을超越하고同四年頃에絲況이回復하야事業의基礎가比前鞏固하얏스나오히려事業에比하야는資本金이小額임으로經營上不充分한點이不無하얏다 그러나社員은다시講究努力하야[illegible]

◇寸鐵◇

【群山】創立二十八週年맛는群山勞働共濟會의, 創立紀念式이感激에넘치는것봄으로도擧行되엇다 創立後不過一年二年에有耶無耶되는現今朝鮮大槪의團體는이에서好例의敎訓을바다야한다 『우준하여라!』이것이우리團體에對한警告이다

◇

【新義州】去月中에越境入國한外國人中에 露國人이第一만혓다 그리고職業別로는商人이第一 무엇을暗示하는事實인지

◇

【裡里】礪山同友會의勞働夜學이開設되엿다 全礪山을魅了하는 文盲打破運動의一小暗로볼수잇다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Wednesday, Nov. 10th, 1926.

WHY ANTI-FOREIGNISM GROWS IN CHINA

By THOMAS F. MILLARD

III

Chinese nationalists reply: "True enough. We lost our sovereignty in part because of our weakness internally and as a nation. But can what we lost be regained only by a display of or by a use of strength? That is a challenge."

So, logically, prevailing anti-foreignism is a response to that challenge. The roots of anti-foreignism are in that concept. It is natural, and the fact that it breaks out in all kinds of actions, many of them seemingly without cogency with the main patriotic thesis, does not change fundamentals. The thing is here, and it will remain. It can be taken from now on as a permanent political factor in respect of China's relations with other governments and peoples.

With that outline in mind, one notes with interest and some concern attitudes and actions of foreigners in China which bear on this anti-foreign psychosis of Chinese. To what extent, if at all, are foreigners themselves a cause of it? Or rather to what extent do they aggravate it? For of course foreigners are primary cause of anti-foreignism here. Without them it never could have begun and would not exist now. Which is merely a self-evident fact, not an allocation of blame.

英 文 欄

中國의排外思想의由來 (三)

全論山郡‖ 庭球選手權大會
이십사조의선수가참례 林、安部組畢竟優勝

충남강경덕구구락부 (忠南江景德球俱樂部)에서는산정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함은 이미보도하얏거니와 가을하날에맑은바람까지도 개이고 벽공에오축세범했살만 내려쪼이는 칠일오전아홉시에 개막이되여 동구락부상윤길중(尹吉重)씨의개회사가 잇슨후에 참가선수의시합순번을 추첨으로 결뎡하며 주심김영용(金永用)씨의포로래 이웰로 시합은시작되자 쟁신한유희품에 날뛰는선수들의 용기는실로 무한히긴장하야 흥미(興味)잇게『펜』들의 가슴을 흔들어노아잇다 손벽소리가 쏘다지며잘친다! 날내다하는 호한소리가 일어나면는 관찬타!힘써라 부탁소리가 한참이여서얼마나 대회의장관을 일우워주고일히이회 삼회전의 권막이못나며준결승에 들어가서 강상림조(江商林組)와구락의조조(俱樂組) 가대전이되아 엠카운드루원으로 림의일승(一勝)이 난며로대사회전에 들어가서 라켓으로바더치는 볼二는썰이 오고가고수십차례세프라인에떠러지더니 엄파이의 불으는아웃소리가 불분명하야 가지고 잠간동안대회장이 시비에쓸렷스나 피차의양보로 해결을엇게되야 오히려자미를 도앗스며 최후의결승전과가른강상군(江商軍)의림조와 라조(林組ㅣ羅組)가대전케되야 긴장미가 적엇슴은 유원하는조리가 잠잠함으로 그리되얏고여 삼회전에 떠러진 강경의강행윤조(尹組)를위하야는가석한생각이업지아니한공에돈산런산가야곡(臨山運山可也谷)동니에슬컷 유감이라 아니할수업섯스나 운한선수들이데이회전에떠러진것은원도가다망한패농을우하는큰 밧에 처음되는 덕구대회가이러케성황을 이두어서 시합이못나자우승행강상림조(江商林組)에게우승끼 수여 득하후 오후네시반에 폐회하엿다는바 전적은좌외여하다더라(강경)

戰績 第一回戰과第二回戰은略

第三回戰

金東浩 金永用 三—〇 南廷瓘 林珍玉
安部 林 三—〇 吉田 重村
趙炳翊 韓相玉 三—一 山村 谷崎
金重吉 尹恒炳 〇—三 羅 鈴木

準決勝

林 安部 三—一 趙炳翊 韓相玉
金東浩 金永浩 二—三 羅 鈴木

決勝

安部 林 三—二 羅 鈴木

要領不得의辨明
반석이업시모호한말로음파 有權者名簿에對한瀆職事件

긔보‖ 경성부협의원선거 유권자명부(有權者名簿)에대한독직사건에 관하야는 부당국의변명은 요령을잡을수업는 모호한 점이잇서 하여간공공연히 그와가른 독직사건을누고 변명으로만버레는 부당국에서는 권긔와가든사건이 금번처음으로 발생한것이아니라 선거당시마다 명부 그이한 독직사건이 잇섯다는바 금번사건의 진상에대하야 부당국의 변명중에는 명부노생긴 독직(瀆職)사건을 이번에처음으로 발견함과가티 말하나 금번유권자 명부등본에대한 사례금(謝禮金)은 이십일일밤에 시내황금뎡(黃金町) 아서원(雅敍園)에서연회를열고 이것을소비하얏다는데 명부등본의 사례금은 삼십원반을 채한 것이아니고 이사례금은 동본한리원(吏員)에게 분배하는것으로 이분배는 항상계주임(係主任)이 정재하는것은 공공연한 워이엿다는바 동본하는 시일에관하야서도 부당국은명부를열람케허가한십일일이십일일 정오에 리원파의뢰자간에 주고밧고 하얏다하나이십일일에는 이동본을 인쇄하야 관매한사실이 잇서스니겨우두어시간동안에 일만명이나넘는 유권자의명부를 인쇄하야저보할수업는은 상식으로도 누구나 능히 알수잇슬것이며 모임본인으로보자가 인쇄하야 관매하는명부록의 명부를 열람허가는 약일개월 전후부터 어든모양인데 부당국의 변명에의하면삼산(森山)계주임이 이사건에 관현관계치안는것가트나 동본한 리원은 모다삼산주임의 명령으로 일을처리하는터 임으로 동본한의뢰하라하면 먼저삼산주임의 량해를 엇지아니하면 되지안을일이며 더욱이 긔괴한것은 이것을 의뢰함에 사례금으로 이선금을 내이지아니하면 삼산주임의량해를 어들수가 업다고하엿다는바 이와가려 머단한독직행위를 그냥ㄴ버코자 하는 부당국의태도는 부민의 반감을사는행동이라고 일반은 꾀축하는터인데 도라오는 부협의회석상에서 간부규탄(糾彈)의부르지즘이이슬러이다더라

◇개항설이유력한웅긔전경◇

陸軍大練習을機會하야 某種運動을計劃
경시령은긴장리대활동 無政府主義者策動

동경경시령 특고조선로동、東京警視廳特高朝鮮勞働)의 각계로부터수완잇는 형사로 선택하야 하야(河野) 옥승(玉置) 무정(武井) 삼지(三枝) 등정(藤井)의다섯형사는 중대한 사명을띄고구주(九州) 방면에 출장하게 되엇는바내용은십일월중순경부터구주디방에서 거행되는 륙군특별대연습(陸軍特別大演習)에당하야 무정부주의자(無政府主義者)들이 혹은어더한묘뎍으로써 그곳에잠입하야 벌서구데뎍행동을 진행코자하는 사실을 이번에 웅본현경찰부(熊本縣警察部)에서탐지하고 즉시경시령에통첩하야 이검거에대한 응원을 요구한결과이며 특히십일일에는 섭정뎐하(攝政殿下)의 행계도잇슴으로 경시령에서는 매우중대시하고 동경시내 각처의 관문에는 형사로하여금 엄중경계케하야 주의자로 거동이수상하다고 인정되는이는 용서업시 검거할방침이라더라(동경뎐보)

藝術會創立

원산청년중으로 극예술(劇藝術)에 만흔흥미를가지고 이에대한 연구를 항상부단이해오든 림석긔(林石基)씨외 수십인의발긔로지난달이십사일 오후륙시부터 부내광석동(府內廣石洞) 림석긔씨집에서 동회창립총회를열고 각부분을 좌긔와가티뎡한후 본보원산지국(本報元山支局)의후원을어더본월십오륙량일간에일자시연을할 예뎡으로 방금준비와련습에분망중이라는데 동회원중에는 동경에 건너가서다년간극계에 종사하이도 만타고 (원산)

(上) 우승한리병주김용태량군 (下)강경에열린정구선수권대회

鄭地主의非難
전남광주(全南光州)부호정상호 작년보다서말식증수

(鄭尙好)씨는 금년녀름에릉수(綾州)봄내량승환씨로부터매수한화순군도암면도곡면(和順郡道岩面道谷面)에잇는 약오백여두락의 토디에대하야 금년소작료를검정하엿다는데 금년은 작년에비하야 풍재로수확고가 머단히감소되얏슴도 불고하고 작년보담매두락에 평균삼두식 이나증가하야 일반소작인들은 애걸복걸하엿스나 한되도 감하여주지안음으로 추수를 중지하고다시감정을고대하나아죽까지귀뎡이나지못하얏다더라(화순)

女子列車慘死

황해도금천군 금천면금릉리(黃海道金川郡金川面金陵里) 사는 정복만(鄭福萬)(五一)의안해방씨(方氏)(四六)는 지난칠일하오 일곱시에 부산행(釜山行)급행렬차가 금교(金郊)역에 차가정거하기전에 뛰여나리다가 너머지면서 긔차바휘노 쓸녀드러가 그자리에서 두팔과다리가잘라저 참아눈으로 볼수업사피바다를 일우고 인사불성이된것을 응급치료를하얏스나네시간만에 고반무참히죽고마랏다더라(금천)

麵屋罷業解決

긔보‖부내설암리안동하면옥에서 직공들세명이 임금문데로 파업을하엿다는것은긔간수인측과 수차의 교섭이잇슨결과직공측의 요구대로 주인측에서용인(容認)함으로직공전부는다시복업(復業)하게되엿다더라(평양)

會名을變更 任員을改選

시내상동(尙洞)에잇는 예수교 청년회에서는 지난칠일에 총회를개최하고 회명을엡윗청년회로 고치는동시에 임원까지 다시선정하얏다는데 이개년동안 이나 ㄱ체중에쇄쳣는 그회는다시 진흥케되엿스며 개선된임원은아래와갓다더라

會長崔相鉉▲副會長金源宋▲總務李周鍾▲宗教部長張明德▲書記李基淳李品鍾▲文學部長洪殷杓▲社交部長孫一鎔▲會計安泰渡金允煥

積雪尺五寸
電信不通交通杜絕 룡정에우편물모다체류 稀見의小春乖候

지난이십륙일 아츰부터 쏘다지는눈은 금년의 처음보는대설노 약일척오촌(一尺五寸)가량이나 싸이게되여 룡정、(龍井)시내의 전선주(電線柱)가여러곳이부러저서 전등을 켜지노하야시내는 암흑텬디를 이두게된 상태이며 뎐화도 불통되엿다가 이십팔일부터 일부분이 복구되엿스며 회녕청진(會寧淸津)사이와회녕룡정(龍井會寧)사이의뎐선의고장은 아즉도 복구되지못하야간도와 조선내디간의 뎐신뎐화는 아즉도 불통이며 선로(線路)의 뎍설(積雪)로인하야 텬도렬도는 저우객차(客車)만을운전하게되고 화물차(貨物車)는운전치못하게되야 이십륙일래 조선내디로부터 간도에 드러오는 우편물은전부 개산둔(開山屯)에싸이여잇다가 지난삼십일부에야 룡정에 도착되엇슴으로 신문(新聞)가튼것은 십일월일일부터야 배달하게되엿더라(간도)

◇芙江小火 충북 부강시내(忠北芙江市內)일본인굴구삼길(日本人堀口三吉)과 중국인(中國人)호떡장사하는사람이비러가지고잇는집에지난칠일오전팔시반에불이낫섯는데즉시소방수의진력으로약두시간만에진화되엿는바그원인은굴구가마츰밥짓노라고불을쌔다가그가리되엿다하며 금번에 손해액은굴구가약사백원 중국인이약삼백원집주、이약이백원합구백원 량이라고(부강)

同族싸리殿打
가해자는데포취됴

안주군대니면남상재리(安州郡大尼面南上漢里)에잇는 서태군(徐泰君)이란자는항상직업이업시도박이나 해먹던자인바 그근처에사는 족속 서래범(徐泰範)이가 넉넉한살림을하는것을 평소부터 시긔해오다가 지나간일일에는 서태군이가 자긔의집에서 서래범을차저다가 술(酒)을마시던중 몰면서래군의안해가 달려드러서 래범의손가락을 무려뜨더 중상을내고 서래군이가또누려뜨더 류혈이 랑자하게되엿슴으로 서래범은즉시 소식만성주재소(萬城駐在所)에고소를데긔하엿던바 이소식을드른 서태군은서래범의친척서래준을차저가서고소를 취하게하여달라고하엿스나 서래준은 모른다고 머답한즉 이자는『홍누개』로 머리를 향부로커서 중상고혼도한것을보고어데로도망을하엿다가안주경찰서에잡히여목하엄중히취조를밧는중이라더라(안주)

小作人이說諭願
農監의無理를 수확을무리하게한다고

안주군동면 (安州郡東面)희수동(熙州洞)안에 거주하는 소작인바련수(朴連洙) 외이십사명의련서로 천긔동(洞) 농감 으로잇는안주군 동면연풍리(安州郡東面延豐里)김덕함(金德咸)을설유하여달나고안주경찰서에원서를내출하엿는데 이제그 사실내용을 드르면견과 히주몽디주들과소작인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소작료 문데로분쟁을 계속해오다가 금년에는소송 까지걸고차우는중임으로 아직해결도 되지안엇는데 농감 김덕함은무리하게 추수한것을 빼아스려고하며 자긔의 마음네로 수확함의 노고와가리무리한 행동을 설유해달라는것이라더라(안주)

富貴의秋收節‖ 載寧平野踏査記(五)
사선에림박한그들의신세 생명의길이언제나잇서서? ◇東拓의惡德實記◇

沙里院 一記者

사람이 몃십년이나 몃백년을살아나려온 고향을 일조일석에쉽사리 떠나기는 좀처럼어려운모양이다 그와가티 살길을일허버리고 쓸쓸한평야에 의지가지업는몸으로도 거의송장이 다된채 그냥허덕대고잇는 참담한생활을계속하고잇다 그들은 잇슬을 호미조밥으로나마 하로에한끼식이라도 간신이 풀질을해주는유일한업(業)은가마니(叺)、짜는것이다 령감、할머니、젊은이내외、아들、딸、모다 달려부터 낫과밤을헤여가며 한아는새기를꼬고 한아는 잡(藥)을먹이며 온집안 식구가 잡시라도 쉬일새업시 일을하여야 하로에겨우사오개를 짯는모양이다 그러면한개에 삼십전가량을밧는데야 이것을가지고 가을 겨울을살아가게 되는것이다 그러노라니 일긔가 치웁지안흔 때는 압풀가든데서 일을하니까 오히려

심상치지 만은낫게서일할수업시 칫운때에는 바람바닥 런정할것업시 모다 흙으로바른 조선집 밖안에서 먼지투성이의 집(藥)을가지고 반낫을 헤매니 짜 코로입으로 들어가는것은먼지속이다 그럼으로 제대로먹지도못하는데다가 먼지만 마시노니 속으로골병이들러서 피스긔는마르고 얼골은 누른빗을띄우는동시에몸은

작고작고 파리해진다 그럼으로도 이제는 반항일긔운조차업시 아조맥이다풀려서 아모소리도지르지못하고 잇스니까 경찰이나 동력에서는 이것을평온(平穩)하다고 조하들하며 떠들고잇다 죽은사람이 무슨반항이잇스며 떠들미잇스리오 모다죽여노코서 이케는평온해졋다고 깃버들하는 그네들이 얼마나잔인(殘忍)한 사람들인가

금년에도 일반의불평과원망은 전보다도더욱심하다 수확고(收穫高)가 사회이나 감소되어소작인들은 엇업는공황(恐慌)중에차허잇는데 소작료는그비레로감해달나고요구들하엿스나이에용하지를안코혹감해준다는것이일할 오부도 잘못된으로일더동안 진염(塵埃)를마시며 농사를지은 사람들은 별도히차저먹을것이업다고 이단들이다 그반면에동텩지부장(東拓支部長)가튼 자긔네의 리용하는 사람에게는

아조싸게 소작료를부과시키는등 무리한행동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하야다시소작쟁의(小作爭議)의 불길이 니러날뜻일어날뜻하면서도원악싸홈에너두나 지쳣고 또그싸홈에서시원한이김을엇지못하야 풀이 죽고긔운이엇꺼 거의죽으나 다름으지안흔상태에서 신음하고 잇는긔비들이기빼문에 들고 니러설긔운이업다 재작년부터

소작조합(小作組合) 이니 무엇이니하야행혀나 행복의길이잇슬가하고 일을하다가 오히려 불량(不良)청년이다는 이름으로 텰창생활까지겨고 나온멘멘유지들이 잇스나 자라보고놀랜 사람이솟똑게보고도 놀낸다는셈으로도 일반소작인 들이너무나 천천공하는 상태에잇기빼문에

아모우동도할수가업고 또한 종참으로무리한 감시와압박이심함으로 개구(開口)를 해볼여디가업는 그막히는 현상이다 그러는동안에감사록 이민들은불길가튼 속도로 작고번식을 하는동시에 그들을 공급하기위하야조선인의소작디는더욱더욱 낙김닙시 쌔앗기는 현상이며그밧게혹그무근에 잇는 사유디는모다이민들이 각금각금 사버리며 동력의토디로된다

이민들이 반갑(半價)만 지불하면 곳남어지반갑은 식산은행(殖産銀行)가튼데서대부를어더주어서 될수잇도록은 속히 땅의광야의 전부를 이민들의소유디를 만들러는중이다 그리하야조선사람은쏫기고쏫기고밀리고 밀려서 모다 몸부칠곳업시표류하는동시에 영원히 처럼을의 고 될러는것이다 애매한 노예를 삼으러는것이다 자라를 백의족(白衣族)들은 웨이다지 무참한 생디옥에 울고잇는가언제나 어린양가튼그들의압헤생명의서광(曙光)이비칠것인가! ―(끗)―

終端候補地는 雄基說이最有力
청진은선후책강구에노력 港灣協會의調査結果

길회선(吉會線)의종단항후보디 (終端港候補地)로청진(淸津)라진(羅津)웅긔(雄基)서수라(西水羅)등 네군데가 쑥히게되야세상의주목을 끌게되엿섯는대 그중 청진방면에서는 그의유동에 여러해동안 힘을두고 적지안는금권까지 허비하여가며 맹렬한활동을계속하여 왓슬뿐아니라 이에까지 그곳에서설된 교통긔관이라든지 그의모든 시설이 상사개소의 후보디중에서는 청진이 데일위를 차지하엿슴으로다른디방에서는 청진이란 강뎍(强敵)에 감히머항할 생각도두지못하고 십상팔구는 청진으로결뎡될줄을 알엇던바 수월전에동경항만협회(港灣協會)됴사위원들이 권긔네군데의 후보디를일일히 시찰하고 도라간후지난달이십오일에 동경에서 항만협회위원회를개최하고 종단항후보디에대한 됴사위원들의 보고가잇난후 서로토의한결과 의외에도 웅긔설(雄基說)이매우 유력하엿다는 뎐보가각신문지상에보도 되고 되매 청진에서는 이에대한 선후책을 강구하노라고 불옷 야단하는모양이며 또한웅긔에서는 갑작이긴장미(緊張味)를띄이게되야지금 각방면에서 수군거리는 모양인데 엇더튼 아직까지 확뎡은업스나항만협회에서 청진을 내던지고웅긔를 주목하는것은 매우흥미잇는문데라하겟스며 만일이 종단항이 웅긔로 확뎡된다하면 이디방은 급격한 번영이잇고야 말것이매 권긔사개소의 후보디에서는 어느곳에서든지이문데가확뎡될때까지는 서로 마음을 졸여가며주시(注視)할것은물론이며 만일웅긔노 확뎡된다하면 이곳에 잇는동포들은 미래에대한든든한준비가 잇서야할것이다

疑問의打殺屍

지나간팔일은 안주장날(安州市日)에장군들이 시내로드러오다가안주군신안주면 송학리(安州郡新安州面松鶴里)송학교(松鶴橋)(일명 자근나리)미테서장당한사람이몸에 흉루청이를 하고 누엇슴으로 술이취하엿나 하고 흔드러보죽 죽는시데 이엿는데 의복이산산히씨저진것을보면타살인듯함으로 곳소관 안주서에 고발하야 안주서에서는 경관이 출동하야엄중이검시를개시하엿다더라(안주)

水組로因하야 併合된 全北地主!
일본인디주만늘어가고 부자만더욱부자돼

근래에산미증식(產米增殖)이란이름아래에 각디에 생기는수리조합은실노놀납만큼 번식되는바그로 인하야소작인의고통이더욱심한것은물론이오조선인자작농인다시말하면소작본가의토디가 나날이남의 손으로넘어가는바위선전라북도(全北)의통계를보면아래와갓다

組合別	一人當所有段別 大正九年	大正十四年
益沃	三町五六	五町七二
臨益	四、四六	六、一六
古阜	三、二七	三、六二
全益	六、七六	六、七二
沃溝	二、二三	一、八一

권긔수자와가티익옥(益沃)가튼대는 한사람이이뎡(二町)여단보를 증가하얏스며 증가하는 반면에는 중가그만콤소작인과 자작농인 소디주가 감소하얏스니 이에다시전라북도관내에잇는소유자의이동(異動)을통계상수자로들것가트면

大正九年

人別	所有者	面積
朝鮮人	三、四九五人	四、一〇六町
日本人	四、一七八	七、八六〇
其他人	一五	三、五八六
計	三、九三四	一四、八六六

大正十四年

人別	所有者	面積
朝鮮人	三、三四一	六、三三六
日本人	六、四八九	九、六〇四
其他	三、一三	四四四
計	三、〇二一	一九、五三〇

馬賊과官軍交戰
관군측의부상자다수 마적은퇴각햇스나재거준비

지난이일에 중국 림강현오도구(臨江縣五道溝)에마적이백여명이나타나서 마츰토벌(討伐)을 떠낫든 모아산토벌대(帽兒山討伐隊)와충돌이되여서성시간교전이잇슨후관헌(官憲)측에부상자 사이명을 내이고마적대는칠도구(七道溝)방면으로물녀간바 그들은 다시대이차습격준비(襲擊準備)를하고잇슴으로부근 인심은매우공포하다더라(신의주)

猛獸驅除‖

지난날이십구일부터 개천군 중서면(价川郡中西面)방면에는 능대부리가인가근처도 몰려다니며 가축과곡물류에 막대한 손해를 버임으로 소관개천경찰서에서는 사수(射手)구명과 모리군 이십일명을 중서면(中西面)사림 급더로파송하야 맹수구제(猛獸驅除)를 부터 당분동안 시행

本報支局搜索 莊致模氏又檢擧
사건은리관용의관련인듯 緊張味를帶한海州警察

지난구일오전십일시경에 해주(海州)경찰서에서는 돌연히 긴장한 공긔를띄여가지고 정사복경관이각처를 수색하든바 본보지국과 지국원의가택을 일일수색하는한편 전시대일보(時代日報) 지국장 장치모(莊致模)씨를검거하야 엄중히취됴중이라는데 사건은절대비밀에부침으로 자세히는알수업스나 일전에 체포된 리관용(李寬用)과무슨 련락이나하야 그리한것인듯하며 요새해주의 공긔는실로송구스럽더라(해주뎐화)

秋收官이 窓戶紙맷기고
소작인에게무리히착취

아산군선장신창 (牙山郡仙掌新昌)면에잇는 경성리순규씨토디소작인들은 디주를 원망하는데이 중일바의며두이비능하다 궤그 내막을 됴사한바에 의하면 경성한일은행(京城韓一銀行)원리순용은 권긔량면에 약륙백석을추수하는 토디로 소작인은근이백명에 달하는바 시세의변천을불구하고 오헐이상을 병작하면서도 년년히 무리한부역을시키던중 금년은 권긔리씨의형리락용(李洛容)이가추수관으로다니던중금년은창호지(窓戶紙)약 [illegible]되는것을팔고소작인한사람에게 벼삼사두식을 거두어먹는다하야 일반은 권긔리씨의 무리한것을 극도로 비난한다더라(아산)

十七歲少女溺死

함북경성군주남면 부거동(咸北鏡城郡朱南面富居洞)지위룡(池渭龍)의맛손녀 채봉(彩鳳)은지난십월 이십팔일 오전열시경에 주남천변에 싸저 죽엇다는데 그죽는사실을 드르면 이십칠날 오후부터 시작하야 그이튼날오전열한시까지 나린비가홍수(洪水)가저서들판에잇는 곡식이물에 떠나려가는터에 권긔채봉은 떠나려가는 곡식을건지다가 나려가는물결에밀려싸저죽엇다고

善山富豪家에 强盜四名이侵入
주인을찻다가주인이업서 손을위협후이십삼원강탈

지난륙일오전두시경에경북선산군선산면로상동(慶北善山郡善山面路上洞) 심정섭(沈廷燮)이 집에 강도네명이침입하야 주인을 차젓스나마츰주인은업고 그집에와서 자는손일인을 위협하야 현금이십삼원을 강탈해가지고 도주하얏슴으로 이급보를접한 선산경찰서에서는 방금 수색에노력중이나 아즉까지 범인의종적은오리무중에잇다더라(선산)

五圓먹고十圓물어

신의주운정뎡사번디에잇는요리뎜영빈각에 작부노릇하는권분이(雲井町四迎賓閣全粉伊)(二五)는 지난 이일에 진사뎡이뎡목에 잇는금성려관김정숙(眞砂町二丁目錦城旅館金正淑)의집에서재목상하는원보에게 일금오원에 밀매음하다가 발각되야 일금십원의 벌금에처하엿다고(신의주)

제가싸리고 남을告訴
소위유림이

전남라주군 산포청년회(全南羅州郡山浦靑年會)와 동군산포면 내긔리한백술(同郡山浦面內基里韓百述) 간에 일대투쟁이생기여 한백술이란자가 의사의진단을 마라가지고 산포청년회간부심여인을 거러라주경찰서에 해죄로 고소를제출하여 방금 취됴중인데 사실을 들으면동분에 한백술이란 자가 산포청년회에대하야 중상뎍언사와 모욕뎍(侮辱的)행동을하엿슴으로동청년회에서는 그대로 잇슬수업서 긴급총회를열고 질문위원사인을 선정하여한백술의 자력으로 밤문하야 질문을하려한즉한백술은 질문에대한 답변은하지안코욕설을하며 질문위원 윤영주(尹榮周)외세사람을구타함으로 가러간회원이 중재하려하고 일대수라장이 되엇슴에 느라고 한백술외 처족이십여명이 곤봉을가지고왜하야공동구타를 시작하엿스나 동리제씨의 극력으로 혀지로중상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엿고 윤영주 윤병혁(尹炳赫) 세사람은뇌복이 엿기고 수삼처에상처를 당하고 라왓는데 소위적반하장의 격으로 한백술은 자긔가청년회원에게공동구타를당하엿다고 근본부터잇는 흉을상해로 빙자하야의사를속혀 거짓진단을 내여가지고그와가티 고소한 것인데 한백술그자는소위유림으로자처하며수신자과장、郡掌 하든자한자승자만의야비한 심술에지나지못한 비행임으로일반은이사건의장래를 주목하다더라

人物賣買犯處罰

人物賣買犯處罰=긔보중국북간도 연길현(延吉縣)외 한구에서 전남보성군벌교면(寶城郡筏橋面)에서 부녀를유인하야다가 밧매하든일이 발각되야 그동안국자가(局子街) 심판령에서취됴중이든동안 권긔서상조와 녀자들은 동소관령에서 엄중취됴를 계속한바 결국서상조는 유인밋인신매매죄로 지난삼십일에 징역오개월선고를밧고 즉시 복역중이며 권긔녀자들은 무사히방면되여 본월七일에 집으로도라왓다고(벌교)

賭博해돈일코 逢賊햇다誣告

경긔도양평군 양동면고송리(京畿道楊平郡楊東面高松里)에 보려둔리수호(李師鎬)(三六)는무고한죄로 양평경찰서에 이십일 구류처분을 바닷다는데 그자세한 전말을들드른번 강원도원주군원주면하동리 (江原道原州郡原州面下洞里)에본적을둔 차능하(車騰夏)는 양평군양동면금왕리(金旺里)금광에 와서 광업을 하던바 광부들의식량비가 졸지에곤난함으로 권긔 리모(李某)를다리고 권긔본적디인 원주군에가서 현금팔십원을 주선하야 주며위선 좀쌀이라도 광부들에게 파러주라하엿더니 도중에서도박하야 소비하고 광부들에게 여하히 할며책이업슴으로 금광에서 강도를맛나 빼앗기엿다고 증거보이기 위하야 모ㅅ멍을 뚤며피를내이고 목에다흙집을내고 양동면 경찰관주재소에 무고한것이라더라(양평)

橫城衡平臨總

강원도 횡성형평사(江原道橫城衡平社)에서는 지난삼일 오후날시부터 동회관내에서 제오회 림시총회를 개최한바 형평사장 김만학(金萬學)씨의 개회로모든 절의를 진행하엿다는바 경청에이는 형평총련맹(衡平總聯盟)에서열린대회에서 결의된바 이에준하야 권긔형평분사에서는 형평사(衡平社)라고개칭하기로되엿스며 더욱이 형평운동에만히 분투하든 김만학씨가 횡성을떠나 다른디방으로가게 됨에 대하야 일반사원은 한업는 유감을가지는동시에 권긔 김만학씨도 일반사원에대하야형평운동에 더 업는 분투와노력을 하여달라는 간절한부탁과 감격부량한 감상담까지잇섯다더라(횡성)

白日場에갓다 竊盜하고逮捕

평북뎡주군 안흥면 안의동삼칠구번디 김대훈과 동동삼팔륙번디약종업허당 (平北定州郡安興面安義洞三七九番地金大勳四三同洞三八六番地藥商業許堂三九)의두사람외 공모로지난오일오전팔시곽산역전유식뎜김래풍(金泰豊)의집에서 뎡주 보통학교훈도 김태원양(定州普通學校訓導金泰源孃)의 완권금시계개와 만년필한개와 가방과바늘쌈을 훔친사실이 탄로되야동일오후 일곱시에 소관경관의손에데포되야 엄중한 취됴를바다 사실전부를 일일히 자백하엿다는데 그내용을 아라본즉권긔량인은 금번 뎡주풍평회에열린백일장(白日場)에가서이일간 ㅁ마치고도라오는길에 권긔 김태풍의집에서 술을먹다가 권긔물품이바람벽에 걸린것을보고 라오르는욕심을 견듸지못하야 그와가티훔쳐이웃집리명렬(李明烈)의변소에 감춘것을 차잣나는데 이케그의운동한만행을라매한다더라(곽산)

家屋崩壞 二名重傷

선천군 수청면 가물남동(宣川郡水淸面加物南洞)에사는목수(木手) 대현(桂大顯)과 차득현(車得賢)(三五)두사람은지난칠일 오전구시경에 권긔두사람은 그집안에서 일을하고잇다가 갑작히 집 너머지면서집에 치엿든것을 즉시여러 사람들이 협력하야 집을헐고두 사람을구원하여내엿다는데 생명에는 관계가업슬듯 하나 류혈이랑자하야 그의 참혹한 상은참아볼수 업섯다는데 권긔누사람의 상처는 생명이 위중한상태가 보임으로 동네 오호세시경에 선천유너 모병원으로 보내여 치료할터이라더라(동암포)

亡夫가그려 飮毒한少婦

평북의주군 비현면연평동(平北義州郡枇峴面延平洞)에사는 김주락(金周洛)의처 해성녀(海姓女)라는 이십륙세의 젊은녀자는 지난오일오후네시경에 집안사람들의 눈을피하야 양재물을 마시고 고민하는것을 발견하고 집안에서는 일변소동을 이르키는동시에 즉시권긔동리에 잇는 의원김[illegible]씨와 비현시 남양의원의사홍건오씨(枇峴市南陽醫院醫師洪健五)씨를 청하야 응급수당을하엿스나 생명이매우위중하다는바 자세한 사실을듯건대 권긔 해성녀의 남편 김주락은 월전부터 병석에서신음(呻吟)하다가 지난 월에 그만이삼칠세의 청춘을 일코이세상을 떠난것을애통히 녀기든끄테 그와가티 음독한것이라더라(비현)

妬忌싸홈끝에 悲觀自殺
남의첩이

함남함흥군 주북리 一三三三번디 김정근(咸南咸興郡州北里一三三三番地金貞根)(二二)이라는녀자는지난오일밤에 자긔집빈방에서 남모르게 양재물을먹고 자살하엿다는데 이제 드른바에의하면 권긔김정근은 함흥군주서면서상리(咸興郡州西面西上里)리석관(李錫寬)에게 시집을갓다가 다시동 중디 일백오십이번디리석관(李錫寬)이라는 사람의 첩이되엿는데 리석관은 나이만토록 본처에 자식이업슴을 걱정하야오든바 김씨에게서 산아이까지 낫슴으로 리석관은 그첩김씨를무한이사랑하여오든바 사랑이 고르지못한 시긔와질투는 본처와김씨사이에 나날이 심하야 매일풍파가 닐어나든바 남편리석관은 서로싸우는 원인이 첩김씨에게잇다고 김씨를 영영 돌보지안코 김씨의 소생인 네살먹는 어린아이까지 자긔집에다려다 두고 김씨는 혼자 고독히 빈방을 직히게되매 신세를 비관하다가 최후의길을준비한 정근은 쓸쓸한빈방에서 자살하엿다는데 발견되기는 익일오전 열시에야 동리사람에게발견되엿다더라(함흥)